

헌혈은 나눔입니다

신종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장 인터뷰



신종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장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잔뜩 흐린 날씨를 뒤로 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1만 3,000명의 노조원이 모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은 ‘철의 노동자’처럼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신종배 지회장은 순박하고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이였다.

그와 본격적으로 화성공장 내 헌혈 활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전, 그가 생각하는 ‘헌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질문했다. 신 지회장은 “우리 국민은 위기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경기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구성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보다 더 연대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손을 잡아준 것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 헌혈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은 수많은 이웃을 구하는 연대의 상징입니다”라고 전했다.





헌혈인원을 2배로 늘린 비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헌혈 참여율도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헌혈 참여율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에는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헌혈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7월 기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헌혈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다. 추석을 쇠고 나서는 대규모 헌혈캠페인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성과에 비법을 공유해달라고 말하자, 신 지회장은 “대의원을 소집해서 동참을 호소하고, 7명의 조직부장이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에게 헌혈을 독려하고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소식지인 <함성소식>에 알렸습니다. SNS에도 올리고 카톡방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1 ____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헌혈 인원이 2천 명이 넘었다.

2 ____ 헌혈 중인 직원 모습



donation
Blood



헌혈과 신종배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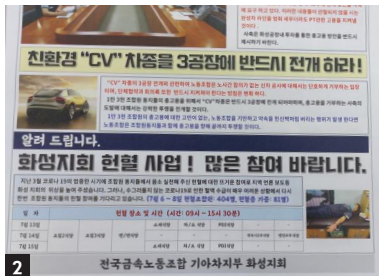
신종배 지회장은 1991년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1996년 조합 활동을 시작으로 대의원 열여섯 차례,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두 차례 역임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26대 지부 임원선거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 지회장은 평소 '소통'을 강조했다. 7월 기준, 화성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들로 북적이다.

신 지회장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조합원들이 좋아합니다. 노조지회장의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이기에 늘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헌혈도 결국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다. ‘소통’과 ‘봉사’가 헌혈의 핵심이라는 말은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겨야 할 문구이다.

한마음혈액원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마음혈액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한마음혈액원과 관계는 노동조합 헌혈사업의 ‘동지’입니다. 여러 차례 헌혈사업을 함께 해 왔고,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헌혈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요청을 다 하게 해 준 ‘동지입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왔다.

- 1 ____ 쾌적한 환경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라인 전경
- 2 ____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소식지인 <함성소식>의 헌혈동력기사



1

2

Blood donation



코로나19 방역과 건강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코로나19 방역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출퇴근 차량을 포함해 차량과 좌석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고 출퇴근길을 열화상 카메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소모임을 자제시키고, 현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매주 마스크 지급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을 철저히 챙기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화성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단체 행사를 치르지 못해 정겨운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규현 노안실장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생산라인을 둘러보았다. 용접불꽃이 튀고 각종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현장 속에 많은 노동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전경이 펼쳐졌다. 공기는 쾌적했고 질서 정연하게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조립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강도는 줄이고 어려운 동작은 로봇과 함께 작업해 근로 피로도를 줄이는 등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있었다.

이규현 노안실장의 목소리에서 기아자동차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전기차' 생산 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CV'라는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뛰어넘는 최상의 '전기차'라고 이규현 노안실장이 귀땀해졌다.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헌혈은 나눔이다

마지막으로 신 지회장에게 헌혈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 그는 “헌혈은 나눔이다”라고 답했다. 5·18민중항쟁 기간에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혈에 나섰던 연대의 마음, 그 마음이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말처럼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 지회장은 헌혈을 주저하는 조합원들과 헌혈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헌혈동참 권유를 잊지 않았다. 🍷